

카메라가 3개? 중가형 스마트폰의 혁신 ‘갤A7’ 공개

2400만+500만+800만 화소 구성
밝고 선명한 ‘인텔리전트’ 기능도
볼륨키 아래에 측면 지문인식센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A7’을 20일 공개했다. 10월 초부터 전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되는 ‘중가형’ 스마트폰 인이 제품이 얼마나 쓸만 한지 살펴보았다.

갤럭시 A7은 스마트폰 후면에 3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3개의 카메라는 2400만 화소(F1.7) + 500만 화소(F2.2) + 800만 화소(F2.4)로 구성됐다. 카메라 모듈 세 개는 세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화질을 중시하는 사진에서는 2400만 화소 카메라는 배경흐림 효과를 주기 좋다. 좀으로 당겨 찍을 때는 500만 화소(F2.2)를 쓸 수 있다. 사람의 시야각과 비슷한 화각 120도의 초광각 800만 화소 카메라는 사용자가 보고 있는



삼성 트리플 카메라 탑재 갤럭시 A7 후면. /연합뉴스

장면 그대로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파노라마 모드로 촬영하면 더 많은 풍경과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저조도 환경에서 4개의 피셀을 하나의 피셀로 합쳐 더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여기에 ‘인텔리전트 카메라’ 기능으로 인물, 풍경, 음식 등 촬영 장면을 자동으로 인식해 알맞은 색감으로 맞춰준다. 셀카에 쓰는

전면 카메라에도 24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고 디스플레이와 LED의 광원을 활용해 보다 밝게 촬영할 수 있다.

화면은 18.5대 9화면 비율의 인피니티 디자인에 6.0형 슈퍼 아몰레드(ANOLE 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이어폰 사용 시 몰입감이 좋은 돌비 애트모스 음향 기술을 지원해 동영상을 즐기는 데도 유리하다.

중요연산을 맡은 AP칩은 중가형에 많

〈삼성 갤럭시A7 제품 스펙〉

디스플레이	6.0형 FHD+ 슈퍼아몰레드 (1080x2220)
카메라	후면: 2,400만 화소(F1.7)+500만 화소(F2.2)+2,400만 화소(F2.4) 전면: 2,400만 화소(F2.0)
AP	2.2GHz 옥타코어
메모리	4GB RAM+64GB 4GB RAM+128GB 6GB RAM+128GB microSD 슬롯 (최대 512GB)
배터리	3,300mAh
크기, 무게	159.8 x 76.8 x 7.5mm, 168g
색상	블루, 블랙, 골드, 핑크

/자료=삼성전자

할 때는 쾌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문인식센서를 스마트폰 옆면에 배치해 보다 쉽게 쓸 수 있다. 볼륨키 아래에 전원버튼 겸 측면지문인식이 달렸다. 그동안 위치했던 뒷면보다 좀더 편하게 지문인식을 쓸 수 있으며 카메리를 이용한 얼굴 인식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빅스비, 건강 솔루션인 삼성 헬스도 제공한다.

갤럭시 A7은 블루·블랙·골드·핑크 등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지역별로 모델과 색상이 다를 수 있다. 중가형 모델로는 카메라 기능에 상당히 공을 들였기에 일상에서 카메라를 가장 즐겨 쓰는 사용자라면 가격 대비 만족감이 높을 제품이다.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은 “삼성전자는 모든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혁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성능의 갤럭시 A7은 일상 생활에 편리함과 특별함을 모두 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2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동력 강화로 美中 무역분쟁 타개 新수출품목 개발·통상 불확실성 해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동력을 약해지지 않도록 수출 지원 강화와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 통상환경 불확실성 제거에 힘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미중 상호관세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미중 분쟁을 장기간 지속할 뉴노멀(New Normal)로 인식하고 민관이 함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단계의 통상협상은 없다”며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후발국들이 추격하기 힘들고 통상환경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품목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과 더불어 통상협상을 통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으로 미국

과의 통상관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에도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동력을 유지, 1~9월 누적 수출과 9월 일평균 수출 규모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수출 6000억 달러를 위해 무역금융과 수출마케팅 등 지원책을 체계화해 수출업계 우려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신(新)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등 8개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해 미중 무역분쟁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대응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이번 상호관세에도 대중·대미 수출에 큰 영향이 없지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라 수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파악한 업종별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과 수출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추석 성수품, 물량 공세로 가격 안정화

10대 성수품 도매가격 7% 하락

청상주만 평년 比 219% 비싸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주요 성수 용품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풀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8일까지 당초 계획보다 15.2% 많은 물량을 공급해 10대 성수품의 도매가격이 이전 3주간 평균 가격보다 7% 하락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태풍·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까지 채소·과일류를 중심으로 수급이 경색됐지만, 이달 들어 날씨가 좋아지고 수급 안정 대책이 효과를 보면서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올여름 큰 폭으로 올랐던 배추는 이달 중순 현재 좋은 날씨 덕에 평년 수준의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무는 지난달 하순보다는 22% 하락했지만, 폭염 대처 과정에서 영농비가 올라가 여전히 평년보다는 76% 높은 가격을 보인다.

사과는 최근 일조량 증가 등으로 과일이 커져 출하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배는 사과보다 수확기가 늦고 출하량 회복이 더뎌 가격이 소폭 올랐다.

이 역시 이번 주 들어서는 출하량이 늘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2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이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나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중이다.

축산물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우 수소 도축 마릿수가 2.7% 감소했지만 소고기를 포함해 대체로 평년 수준의 가격대를 유지 중이다.

밤이나 대추 같은 임산물도 올해 작황은 좋지 않지만, 저장물량 출하를 확대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가격이 급등해 ‘금(金)금치’로까지 불린 시금치는 정식·과자 등 20~30일 이면 수확 가능한 특성과 최근 기상여건 호전으로 이달 상순 들어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 급등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시금치 도매가격은 4kg당 지난달 하순 6만7121원에서 이달 상순 3만8554원을 거쳐 이달 중순에는 2만7062원까지 떨어

졌다.

청상주 역시 이달 중순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청상주 도매가격은 4kg당 지난달 하순 3만4508원에서 이달 상순 들어 8만681원으로 경총뛰었으나 이달 중순 들어 4만5782원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평년보다 219%나 비싼 가격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추석 연휴 직전까지 10대 성수품을 지속해서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며 “주요 채소류는 단체급식·외식업계의 식재료 구매 등으로 추석 직후에도 수요 증가가 예상돼 조기 출하 등을 통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홍합 단백질로 항암치료 가능해진다”

앞으로 홍합단백질을 이용한 항암치료가 일반화 되는 날이 다가올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뛰어난 접착력을 가진 홍합단백질 기반의 초미세입자를 활용해 항암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현재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무역보험과 수출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항암치료는 먼저 종양을

하기 위해 시행된다. 그러나, 기존의 항암 치료는 암세포 외에 정상세포까지도 손상을 입힌다는 단점이 있었다.

포스텍(POSTECH) 차형준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는 해양생물인 홍합의 접착단백질에서 추출한 초미세입자를 활용해 항암제를 암 조직에 직접 분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연구팀은 암세포가 있는 쥐를 대상으로 총 3가지 방법의 실험을 시행했다. 먼

저, 암이 발생한 부위(평균 크기 250㎟)를 동일하게 절개한 후 ①일반항암제, ②생리식염수, ③홍합단백질 기반 초미세입자를 활용한 항암제를 각각 스프레이에 담아 분사했다.

연구팀이 30일 후 암 종양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①일반항암제 : 1600㎟, ②생리식염수 : 1670㎟, ③홍합단백질 기반 초미세입자를 활용한 항암제 :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항암제만 단독으로 분사했을 때 보다, 홍합단백질의 초미세입자를 활용했을 때 3배 이상의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를 보인 것이다.

/세종=최신웅 기자